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1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7월 31일 (음력 7월 7일) 월요일

광주·전남 찾는 외국인 관광객

에버랜드 한 곳보다 적다

교통 등 인프라 부족…작년 1.3% '전국 꼴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광주·전남은 매력이 별로 없는 곳이다. 국제선 항공편이 드물고 뛰어난 관광명소가 많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한해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3.4%만이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외국인이 한국여행 중 주로 방문한 전국 12개 지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단순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서는 겨우 1.3%만이 광주·전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3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0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후 인천과 김해,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외국인 1만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들 가운데 광주·전남을 찾았다는 외국인은 불과 3.4%에 그쳤다.

광주·전남을 찾은 외국인 비율은 외국인이 한국여행 중 방문했다고 응답한 전국 18개 지역과 관광지(12개 지역과 6개 관광지·중복 응답) 가운데 15위에 그친 것이다. 즉 광주·전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비율은 3.4%로, 용평리조트(2.3%)와 구미시(1.5%), 무주리조트(0.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며 개별관광지가 아닌 전국 12개 권역별로는 구미를 제외하고 11위 수준에 그쳤다.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경우는 더욱 적었다. 방문 목적별로는 여가와 위락,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외국인 4천240명 가운데 1.3%만이 광주·전남을 선택, 무주리조트(1.1%)와 울산(0.8%), 구미(0.3%)를 제외하곤 가장 적었다.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과 태국이 각각 5.6% 그리고 프랑스(5.5%)와 캐나다(5.3%)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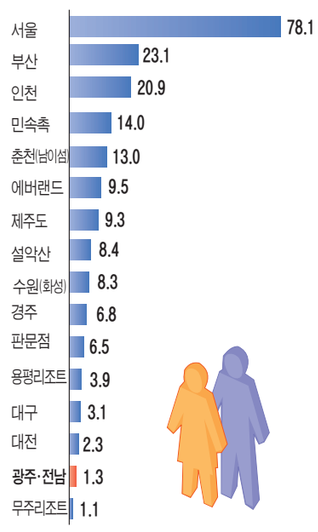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 또는 관광지는 서울(78.1%)이었으며, 부산(23.1%), 인천(20.9%), 용인 민속촌(14.0%), 에버랜드(9.5%), 제주도(9.3%) 순이었다.

지역 관광전문가들은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전남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우선 광주·전남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제 정기선으로는 광주~상해 노선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 지역을 방문하려면 인천, 제주 등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에 있는 대다수 '유명 관광지'들도 내국인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묵을 만한 국제규모의 특급호텔이 없다는 점도 외국인이 이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특히 광주시·전남도 등 각 지자체와 관광협회, 여행사, 항공사 등이 공동으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원구(58) 광주시관광협회장은 "국제선도 거의 없고, 외국인이 둘러볼 만한 관광지나 호텔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가·위락 휴가목적 방문 비율
(단위:%, 중복응답)



명사십리 '물 반 사람 반' 오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29~30일 전남지역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 더위를 달랬다. 특히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지난해 12월 완도읍과 신지도를 잇는 신지대교 가설로 교통이 편리해져 주말과 휴일 지난해보다 5배나 많은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관련기사 8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원호 4개월만에 풀려났다

몸값 80만달러 최종 합의

지난 4월 초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원양어선 동원호 선원들이 30일 전원 석방됐다. 동원호 선원 석방 사실은 이날 오후 정부와 동원수산측이 각각 확인했다.

〈관련기사 8면〉

동원호는 30일 밤 피납됐던 소말리아 오비아항을 떠나 공해상을 거쳐 케냐 몸바사항으로 이동하게 되며, 몸바사항 도착 이후 한국인 선원 8명은 전원 항공기편으로 한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외국인 선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귀국하거나 배에 잔류하게 된다.

현재 동원호에는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5명, 중국인 3명 등 17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다. 동원호가 몸바사항까지 항해하는 데는 약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북쪽으로 300㎞ 가량 떨어진 하라데레 지역 원로인 압디 일미는 AFP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말리아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선원들이 80만 달러를 지급한 뒤 모두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선원들)이 일찍 석방될 수 있었으나 몸값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민병대(해적)는 1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8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협상 과정을 전했다.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는 올 4월 4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으며 최성식 선장 등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베트남인 5명, 중국인 3명 등 선원 25명이 3개월 이상 억류돼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金부총리 거취 政局 '태풍의 눈'

與 "사퇴 불가피"…金부총리 "청문회 하자"

'논문 파문'에 휩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 거취 문제가 정국의 태풍으로 등장했다. 〈관련기사 4면〉

김 부총리는 사퇴 불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 불가피'쪽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논문 표절 및 재탕 등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를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논문사태로 야기된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하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육군 2020년께 80% 모병제로

육군이 2020년께 사병의 80%를 '모병'(募兵)으로 충원할 계획이어서 현재 징집제인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38% 수준인 모집병력을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80%까지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즉 징집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38% 수준으로 모집하는 모집병 규모를 2010년에는 50%, 2015년에는 6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0년에는 80%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연간 22만여명 수준인 입영인력이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이면 1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8만여명이 모병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제도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모집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기인 전문·기술직위에는 모집병을 확대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역병 의무복무 만료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 6~24개월 가량 하사로 근무토록 하는 '유급 하사(가칭) 제도'를 가급적 이른 시일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나름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오늘 교육위원 선거

제5대 광주시·전남도교육위원 선거가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각각 7명과 9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광주는 15명, 전남은 24명이 출마해 각각 2.1대 1과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신풍제약주식회사

활기찬 하루, 건강한 인생!
닥터큐텐
열심히 뛰는 사람들 곁엔 닥터큐텐이 있습니다.

β-Carotene
Vitamin C
Coenzyme Q10
Zinc
Vitamin E

광고심의필 : 879-0100
마약없는 밝은 사회, 새천년의 밝은 미래

코엔자임Q10이란?
코엔자임Q10은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안정시켜 신체에 나쁜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의 제거 및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합성을 돕는 중요한 체내 조효소로 신체에 있는 각종 항산화 비타민(Vit A, C, E)의 상체이 용률을 높여 줍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그 양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외부로부터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닥터큐텐은 이런분께 좋습니다.
■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혈액순환장애가 있거나 손발이 차고 저리신 분
■ 어깨, 목결림이 있으신 분
■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

코엔자임Q10 & 항산화제
닥터큐텐 연질캡슐
소비자상담전화 080-200-0101

■효능·효과
다음 경우의 비타민 A,C,E의 공급
우체피로, 임신·수유기, 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 시력,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 예방, 발한멀미방에 및 갱년기시 증상의 완화

■성분
코엔자임 큐텐,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Zn), 셀레늄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